

3》연영과추가등록금실태



4》후마니타스 재도약 공청회



8》국제캠 기숙사공실률, 만족도는 높다?



지난 11일,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서 2017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평화 음악제가 열렸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실용음악과 학생의 공연과 뮤지컬〈레미제라블〉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무대가 꾸며졌으며, 환경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사진=이근한 기자)

출범식 마친 LINC+ 사업단 참여학과에 사업비 적극 지원 약속

LINC+ 사업 현장 점검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LINC+ 사업단 흥종선 단장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학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흥 단장은 “현재 32개 학과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다”며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과에게 많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LINC+사업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LINC+사업의 이행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행 1차 년도인 올해에 사업 진행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단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과 센터 설립, 인사 발령 등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흥 단장은 “수도권 LINC+ 선정 대학 중 우리학교와

위해 우리학교는 사업단을 꾸리고 산하에 산학협력성과분석센터, 산학융합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협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혁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우리학교는 LINC+사업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LINC+사업의 이행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행 1차 년도인 올해에 사업 진행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단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과 센터 설립, 인사 발령 등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흥 단장은 “수도권 LINC+ 선정 대학 중 우리학교와

고려대만이 LINC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던 학교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학교들에 비해 사업 진행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외 세부 사업 계획은 준비 단계임을 밝혔다. 지능형 산학협력 플랫폼인 Aladin(알라딘)은 학생의 전공, 이수한 과목 등을 입력하면 학생의 희망 진로에 맞는 커리큘럼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역량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Info21 사업단과 함께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부터 이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행복기 숙사에 국제캠퍼스는 학생회관 1층에 올해 안으로 오픈 랩을 완성할 예정이다. 오픈 랩은 학생 취업교육 및 진로상담, 창업 지원 등에 이용된다.

또한, 미래혁신원과 협력해 KHU valley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창업을 경험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 학원 법인 산하의 의료기기 관련 자회사가 설립될 계획이며 전기자 동차 관련 자회사 설립도 구상중에 있다.

사업을 당초 계획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흥 단장은 “LINC+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훌륭히 마무리 짓는다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LINC+ 사업으로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Newsmaker

KHU-UN 인턴십 프로그램 파견자
이세연(평화복지대학원 2015)



UN DESA에서 보낸 6개월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 미래문명원에서 진행하는 KHU-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의 국제기구 인턴 사원을 배출했다. 2016년까지 파견된 95명 중 11명은 현재 외국 기업 및 기구, 국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UN DESA(UN 경제사회국)에서 UN 인턴십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세연(평화복지대학원 2015) 학생에게서 뉴욕에서의 UN 생활 6개월을 들어봤다.

경쟁이 적절히 된 것도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턴십, 한국어도우미, 다양한 행사통역이나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으며 기꺼이 자극을 받으려 노력한 것이 UN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다.

물론 타국의 낯선 환경, 문화 차이가 주는 혼란은 벗어갈 수 없었다. “저는 성격이 조용한 편인데, 동양권 문화가 아닌 분들에게는 침묵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그에게 의외의 해답을 준 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옆자리 인턴에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아니, 배우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배워서 습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경험하라는 뜻이었죠. 어쨌든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면 상대방에게도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동기부여가 ‘호기심’인 그는 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 가 있을지 궁금해 하는 중이다. “매번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꿈을 꾸는 경희대 학생들을 위해 그는 따스한 조언을 건넸다. “국제기구, 국제개발 쪽 직업이 유동적이고 단기적이어서 그런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해요. 그러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크게 발휘되는 분야라고 느껴요.” 그는 UN에서의 6개월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가까운 미래, 국제기구에서 꿈을 펼치고 있을 이세연 학생의 행보가 기대된다.

국제캠 총학선거 전자투표 안건 폐기, 다시 원점으로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국제】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 상정된 전자투표 찬반안건이 표결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의 의결 선언 없이 폐기됐다. 재직인원 68명 중 42명이 참석한 지난 11일 학운위에서 전자투표 찬반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2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를 두고 회칙해석에 따라 가·부결 여부가 엇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의 핵심은 전자투표 찬반 안건이 전자투표 ‘시행여부만 결정’하는 결정안이라는 주장

과 전자투표 시행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시행세칙도 개정’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의 견해차이다. 하술한 안건을 제시한 총학생회의 실책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10장 선거시행세칙 개정 69조 개정의결’에 따르면 중앙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결과 22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를 두고 회칙해석에 따라 가·부결 여부가 엇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의 핵심은 전자투표 찬반 안건이 전자투표 ‘시행하는 개정안이라면 선거시행세칙 69조에 의해 전자

투표 찬반표결은 부결이다. 생명과학대학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회장은 “전자투표는 선거 시행세칙에 명기되지 않아 이를 진행하려면 시행세칙개정이 필요하다”며 “과반수 찬성 가결에 따른 일반정족수 회칙이 아니라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특별정족수 회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자투표 안건이 단순히 확정 내 여론수렴만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시행세칙개정 가결조건은 무의미하다. 공과대학 김영재(화학 공학 2012) 부회장은 “이번 안건은 시행세칙개정에 대한 확정이 아니

다”라며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반정족수 회칙에 따라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은 의견차가 커짐에 따라 휴회를 선언했다. 결국 다음 학운위에서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재논의의 이전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올로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야음정음, 문자의 반격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시선

사설

우정원 20년 전의 족쇄, 풀어낼 논의 시작해야

대학생에게 기숙사는 집이다. 법적으로도 기숙사는 주택으로, 주거와 삶의 공간으로 인정받는다. 캠퍼스 곁에 삶의 공간을 짓는 것은 학생의 주거권과 더 나아가 보다 나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최소한의 의무다.

여느 서울 시내 대학교 같이 우리학교는 기숙사 문제로 지난한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 서울캠퍼스가 절대적인 호실 부족으로 신음하는 사이,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20여 년에 걸친 긴 속박으로 인해 발생한 기숙사 문제에 마주하고 있었다.

국제캠퍼스 우정원 기숙사는 1995년 당시 (주)부영이 기증형식으로 우리학교에 건립을 시작했다. 97년 4월, 골조공사까지 완료됐지만 IMF 이후 경기 악화로 부영은 그간 공사분과 모든 권한을 학교 측에 위임했다. 학교 측은 LG건설(현 GS건설)과 협약을 맺고 우정원을 완공했다. 당시 돈으로 공사비용 1백 5억 원 중 55억 원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대신 완공 후 20년 동안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협약의 골자였다. 지난 7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 족발된 우정원 논란도, 시설에 비해 턱없이 비싼 기숙사 입사비도,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시설도 모두 이 20여 년 전 협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학주보가 진행한 국제캠퍼스 기숙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학생들의 인식을 대변한다. 응답자의 8할이 기숙사의 비싼 비용을 지적했고 반 수가 노후된 시설을 꼽았다. 20년 전에는 그래도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캠퍼스 정문 건너 서천·영통지구 등 국제캠퍼스 인근은 급속도로 개발됐고 깔끔한 원룸 건물이 비온 뒤 죽순 자라나듯 빼곡히 자리했다. 2인 1실, 낡은 공조장치와 신발을 벗을 수 없는 흙바닥 기숙사에 지불하는 월세와 비슷한 금액으로도 정문 밖에서 편히 몸 뉘일 빙을 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숙사 비용은 기숙사의 사전적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 사전은 기숙사를 '싼 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와중에 구태를 지키고 있는 기숙사가 학생들의 선택에서 탈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논란 이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는 우정원 운영권 조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GS건설로부터 이를 조기에 돌려받아 기숙사비, 시설과 같은 이후 운영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당장 학교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지금도 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주거환경에 잠을 청하고 있을 터이지만 조기 이관 논의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기숙사가 현재 학생이 바라는 주거 환경에 못 미친다는 것은 조금 부풀려 말하면 그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격과 더불어 시설물, 식사, 방역 등 서비스는 주거권과 직결된다. 기숙사의 주거권은 그 본질로 인해 곧 교육권으로도 이어진다.

10여 전부터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했던 민자 기숙사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학교가 우정원을 조기 이관받아 기숙사의 의의에 부합하는, 입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숙사로 탈바꿈 시킨다면 이것은 우리학교가 대학가에 남기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치과대학 박영국 학장

FDI 협의회 집행위원 당선

미디어·여론 동향 2017.9.25 - 10.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간호과학대학 50주년 기념 '촛불의식 및 비전선포식'이 지난달 27일 열렸다.(간호대, 촛불의식으로 간호 이념 다져/대학주보 온라인, 2017.9.27) 촛불의식과 나 이팅게일 선서는 매년 진행되지만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간호과학대학 비전선포식도 함께 개최됐다. 학부생들은 촛불의식을 통해 간호사의 소명의식을 다시 생각했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 이인숙 회장과 임영진 의무부총장의 축사와 함께 그간 간호과학대학 발전에 공헌한 동문, 직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초대 동문인 67학번들이 자신의 경험을 후배에게 일러주는 특별 강연도 열렸다.



이 주의 주제 - LINC+와 후마니타스

두 마리 토끼 잡기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모두 놓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학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며 인문학을 중시해 왔다. '취업사관학교'를 표방하는 여타 대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특색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다. 물론 일각에는 인문학을 중시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학생 역량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은 당시 국내 대학 중에서는 획기적인 선택이었고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학교의 상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LINC+ 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 육성 사업이다. 사업선정 대학은 사회 수요에 맞춰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보내고, 현장실무가 중점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쉽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

학생은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단계부터 어느 학과에 진학을 해야 취업이 잘되나 고민한다. 그 후에는 스펙 전쟁에 함濡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LINC+ 사업의 목표는 그런 학생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대학은 국고를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치고 취업률까지 오르니 원-원으로 보인다. 더 불어 지역 중소기업을 대학이 지원하고 기업이 성

장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창출되니 사업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 되는 점이 있다. 우리학교가 그간 취해왔던 기조가 무너질까 하는 걱정이다. 우리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며 인문학을 중시해 왔다. '취업사관학교'를 표방하는 여타 대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특색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다. 물론 일각에는 인문학을 중시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학생 역량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은 당시 국내 대학 중에서는 획기적인 선택이었고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학교의 상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 LINC+ 사업 계획서 안에는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다. 산업체의 요구와 참여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한다는 것이다. 사회맞춤형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과의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한 쪽에서는 '인문학'을 강조하고, 한 쪽에서는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 능력'을 강조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변화에 맞게 대학 또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학교가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학생의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나섰으나 부단히 노력해 두 마리를 모두 손 안에 넣길 바란다.

한방병원 이재동(침구과) 교수 연구팀이 개발 중인 비만치료 한약 '한슬립'의 2차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한다.(몸 속 지방을 에너지로, 비만치료 한약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대학주보 온라인, 2017.10.12) 한슬립은 식욕 억제를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약과 달리 몸이 저장해줬던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도와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한방병원 의사들은 필요한 약품을 직접 조제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400만 포 이상 처방된 '한슬립'은 그 안정성과 효과를 어느 정도 검증받기도 했다.

박영국 치과대학장이 세계치과의사연맹 협의회 집행위원에 당선됐다.(박영국 치과대학장, 세계치과의사연맹 집행위원 당선/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9.26)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최고 집행기구인 협의회는 교육, 임상, 보건 업무 전반을 관掌하고 세계 치의학계에 미션과 비전을 제시한다. FDI 집행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10명이며 한국은 2002년 이후 두 번째로 집행위원을 배출했다. 박 학장의 당선으로 인류 구강건강·보건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박 학장은 FDI 집

행위원으로서 영양결핍으로 인해 구강 내 정상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노마'와 노년기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호텔관광대학 이충기 교수는 논문검색 DB 인사이트(Incites) 검색 결과 관광·호텔·레저·스포츠 분야 연구 실적 세계 4위를 기록했다.(이충기 교수, '관광·호텔·레저·스포츠' 연구 실적 세계 4위/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10.12) 이 교수는 인사이트의 결과가 평소 관련 분야에 대한 고민을 연구에 적용한 결과라며 "세계적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그가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 진행한 '실현율' 연구는 SSCI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다.

LH공사는 동대문구 관내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와 동대문구 도시발전 및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H공사&동대문구, 도시발전 및 대학도시 조성 위한 MOU 체결…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협력체계 구축/일요신문, 2017.9.26) 협약에 따라 동대문구와 LH공사는 도시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공동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독자들을 갈라놓는

유력 신문들의 페이스북 네지

세시봉

이수형 (편집장)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리처드 탈러 교수가 선정되며 그의 '넛지이론'이 다시금 화제다.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마케팅 기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입이 가능한 넛지이론을, 기자는 작금의 언론행태에서 찾고 있다. 본래 유통업체의 영업전략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이론이지만, 독자반응이 즉각적인 페이스북에서는 특히 언론의 생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언론들은 '슬쩍 옆구리 치르기'를 잘한다. 대형마트는 계산대 앞에 껌이나 초콜릿을 배치한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고객회전률을 높이고자 식사 시간을 제한한다. 일간지도 그들만의 영업전략으로 독자를 조련한다. 페이스북은 언론 입장에선 훌륭한 넛지환경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독자에겐 분열의 장과 싸움터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이 스스로의 정파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독자를 양분한다. 독자는 선호하는 신문을 쉬이 바꾸려하지 않는다. 진보지가 어느 날 보수지의 논조를 뛴다고 해서 보수지의 독자가 진보지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언론이 스스로의 정파성을 강화하는 것을 영업전략으로 삼아왔는데, 페이스북은 언론사들이 이 넛지를 보다 쉽게 장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언론의 넛지 중 대표적인 것이 무보도다. 자신의 독자층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슈거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다. 무보도는 엄연히 언론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다. 언론비평 전문지를 표방하는 미디어오늘이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따금 언론들의 무보도 행태를 비판한다. 페이스북은 무보도 행태를 감추거나 이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

페이스북은 거대하나 2차 유통망에 불과하다. 언론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기사 중 2차로 페이스북에 올릴 기사를 자신의 정파성에 맞게 선별한다. 문제는 언론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기사를 읽는 독자보다 페이스북으로만 기사를 접하는 독자가 월등히 많다는 데 있다.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 언론사는 독자들로부터 기사를 숨길 수 있다. 보도 자체는 이뤄졌으므로 무보도라고 비판하기 곤란해지는 효과는 덤이다.

독자로선 각 언론사로부터 적은 숫자의 기사를 접하는 탓에 무보도를 알아채기도 어렵다. 언론이 '큐레이팅'한 페이스북 기사에 익숙한 독자 중 무보도를 떠올려 내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독자뿐이다. 독자들은 꼭 전달받아야 하는 보도가 있다는 것은 잊은 채로 '그려려니' 할 뿐이다.

무보도가 반복되고 독자 간 정보의 차이가 커질수록 독자들은 분열한다. 여기에 페이스북 관리자의 '페이스북에서나 가능한', '비공식의 탈은 쓴' 자극적인 한 마디가 첨가되면 분열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된다. 조선일보가 삼성 영업이익을 말하면 댓글은 정부의 '기업 죽이기'를 성토하고 한겨레신문이 같은 것을 말하면 댓글은 '이재용의 무가치함'을 비난한다. 이미 페이스북은 논의의 장이 아닌, 예민하게 대처하는 양쪽 여론을 먹고 자라는 언론의 놀이터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공금을 학생 개인 계좌로 … 학과, “해결 방안 마련할 것”

연극 트랙 ‘추가 등록금’ 논란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국제】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의 ‘추가 등록금’이 개인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극트랙은 전공 특성을 살려 타 과과 졸업논문, 졸업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맥으로 ‘졸업공연(정기공연)’을 진행한다. 정기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기공연을 위해 연극트랙 학생들은 등록금과 별도로 매 학기마다 ‘공연제작실습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한 명이 내는 액수도 매 학기 28만 원, 8학기 총 224만 원에 달한다. 4년 간 정기공연에 1번만 참여하는 사람도 22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연제작실습비를 8학기에 거쳐 나눠 걷는 이유에 대해 연극트랙 학생회 김현실(연극영화학 2014) 회장은 “한 번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기에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재학생들도 이러한 점에는 공감한다.

다면, 졸업을 위한 공연에 사용되는 공금이 학생회장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졸업공연을 총괄하는 씨어터오픈장 김태윤(연극영화학 2015) 씨는 “재학생이 90~100명 정도로 한 학기에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만 원 초반까지 걷는다”고 밝혔다. 이 액수



는 학교 본부도, 과 사무실도 아닌 연극트랙 학생회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 된다. 김 회장은 “한 때는 등록금 고지서에 ‘추가등록금’ 명목으로 공연제작실습비를 냈지만 학교에서 걷으면 세금을 내야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액수를 줄여들었고, 제 때 쓸 수 없어 학생들의 사비로 메꾸고 후에 돌려받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학생회가 현금을 걷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 또한 “원래 학교에서 돈을 걷었지만 사용의 불편함이 제기됐고, 학생 요구를 수용해 학생회에서 걷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습비가 개인계좌로 관리되기에 별도의 회계감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접근성 역시 폐쇄 커뮤니티에만 게재돼 일부만 열람할 수 있는 상

태다. 의명을 요구한 연극트랙 학생은 “동기들끼리 걷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연 후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정기공연이 끝나고 난 후 공연과 정과 결산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과 카페에도 올린다”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인 결과 정기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에 통장내역과 결산안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정기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만든 카페이기 때문이다. 계시물의 조회수 또한 7회에 그쳤다.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카페에 결산안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성이 다분하다. 의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학과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공지 채팅방에 ‘카페에 결산안이 올라와 있다’고 공지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기공연을 하고 남은 돈의 행방도 알기 어렵다. 김 회장은 “2학기는 뮤지컬이기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1학기는 연극을 올려 예산이 남기도 한다”며 “남은 돈은 저축통장에 입금하고, 이후 학교에서 살 수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은 돈을 따로 모아놓는 통장 또한 씨어터오픈장 개인 명의이다. 2개의 통장이 있기 때문에 잔금처리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현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걷는 돈은 사실 공식적인 예산이나 다름이 없어 학생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계좌 관리의 문제점에서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며 “돈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해야 하고 명확해야 한데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비리도 끼고 사고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학과 공식적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과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학과 사무실로 통해 걷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에 산적한 이승민 계장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 걷는다 해도 이를 교비에 편입시켜 교비카드를 통해 사용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선택에 따라서는 과 사무실을

통해 걷는 방법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미지수인 것이다.

지난해 경영대학 학생회가 처음으로 개설한 법인 통장 사례를 참고해볼 만 하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단과대 학생회 최초로 법인 통장을 개설했다. 법인 통장의 경우 다음 학생회에게 물려줄 수 있어 회계처리가 투명해지고, 배임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학생과 학생회 사이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경영대학 학생회 최상현(경영학 2012) 전 회장은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학생회로 돈을 납부할 때 훨씬 더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이유를 밝혔다. 경영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는 2,400명으로, 작년 기준 신입생 오티 참가비를 위해 걷는 돈만 3,0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큰 단과대학이다. 연극영화학과가 1년에 4,000만 원을 걷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현재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어 보인다. 김 회장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애석하리만큼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제작비를 걷는다”며 졸업공연을 위해 돈을 걷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기 졸업 패션쇼를 진행한 의류디자인학과에 경우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었지만 장부 공개를 투명하게 했다. 어쩔 수 없이 걷어야 하는 돈이라면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졸업공연 위한 공연제작실습비 … 타대 연영과는?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국제】 서울 주요 사립대 연극영화학과(연극트랙/전공) 중 우리학교 연극영화과 연극트랙만 졸업공연(정기공연)을 위해 1~4학년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한 학기당 28만 원에 달한다. 타 대학이 모든 공연비용을 교비로 지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서울권 연극영화학과가 있는 대학 중 졸업공연을 하는 6개 대학(국민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을 대상으로 ‘졸업공연을 위해 걷는 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만 졸업공연비 명목으

로 돈을 추가로 지출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외의 소품비를 걷는 학교는 세종대와 국민대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비에서 기본적인 실험실습비는 제공받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졸업반 학생만 자발적으로 추가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8만 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걷는다”고 답했다. 국민대의 경우 “필요시 소품비 명목으로 걷는다”고 답했다.

한양대의 경우 매 학기당 만들어질 공연 개수를 정하고 대학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학교에서 학생 1인당 공연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 예산을 내려주는 형식이다.

중앙대 역시 학과에서 공식적인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걷는 비용은 없다.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 역시 정기공연을 위한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1년에 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장바구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아 수업 중 필요한 장비 구입과 수리에 사용한다. 연극영화학과 사무실 신정숙 조교는 “1년에 600만 원의 지원비로 학생이 설치할 수 없는 기자재, 학교에 없는 기자재나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연극트랙 학생회 김현실(연극영화학 2014) 회장은 “뮤지컬의 경우 음향기기 대여료로만 6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공연제작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원비로만 공연을 제작하기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타 대학과 비교해 우리학교 연극영화과의 두드러진 문제는 확정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씨어터오픈장 김태윤(연극영화학 2015) 씨는 “가예산을 짜긴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바뀌기 때문에 확정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확정된 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연에 참가하는 인원에 예산을 맞춰 걷을 수 없어 28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걷어 공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8만 원의 책정기준 또한 모호하다. 김 씨는 “예전에는 조금 더 비쌌는데, 조정해오다가 현재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계속 그렇게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규모를 크게 하는 졸업공연은 보통 업계 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의 졸업공연 경우 그러한

〈졸업공연비 재원 마련 현황〉

대학명	학과 지원 외 걷는 돈	비고
국민대	△	소품비 필요 시
동덕여대	X	
성균관대	X	
세종대	△	4학년만 필요 시
중앙대	X	
한양대	X	
경희대	O	1~4학년 재학생

목적성과 멀다. 의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돈이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 졸업공연을 진행하면 되는데, 일부러 규모를 크게 하려고 추가로 돈을 걷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정시전형 모집 안내

구분	일정	내용
①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7. 10. 12(목) 10:00 ~ 18(수)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 100%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보관 후 전형당일 지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7.10.18.(수)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② 서류 도착 확인	2017. 10. 13(금) 10:00 ~ 19(목)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로그인 → 내원서보관함 → 접수 원서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릭 → 오른쪽 중앙 ‘서류도착 확인’ 배너에서 조회 또는 http://gskh.knu.ac.kr (대학원 홈페이지) ■ 서류도착 여부 및 누락서류 지원서가 직접 확인
③ 전형일시	2017. 11. 11(토)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전형장소 공지 예정일 : 2017. 11. 9(목) ■ 공지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 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수험표 지참
④ 합격자 발표	2017. 11. 24(금) 15:00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nu.ac.kr
⑤ 합격자 등록	2018. 1. 6(월) ~ 12(금) 16: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고지서의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공지사항으로 추후 안내함
⑥ 기타 사항		<p>※ 전형료 안내 내국인 전형 - 석사 : 75,000원, 석박통합/박사 : 85,000원, 예체능계열 : 95,000원(수수료 포함) 외국인 전형 - 전과정 : 127,000원</p> <p>※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학 관련 모든 안내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nu.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전체 공지됩니다. (지원자 개별 공지 없음)</p>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 2017.10.23(월)~10.30(월) 17:00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www.uwayapply.com>)

●모집전공

구분	일정	내용
서울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박물관·미술관교육, 보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상담심리
국제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리더십, 초등영어교육, 실용음악교육, 평생교육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관련학과 34학점 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 이상 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상업 교육 4분야 이상)

- 그 외 전공별 세부지원자격은 모집요강을 참고

●전형요소 : 서류, 필기, 면접 등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장학금 지급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특전

- 서울캠퍼스: 02-961-0135~6
- 국제캠퍼스: 031-201-2021~2
- 홈페이지: <http://edu.knu.ac.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후마니타스 공청회

출범 7년차 후마,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다

후마 재도약 특별리포트 발표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 우리신문은 양 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신임학장 취임과 함께 가시화 된 ‘후마니타스 칼리지 재도약’ 프로젝트를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2011년 출범해 지난해 대형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한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가 이번에는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 후마는 올해 7월 ‘재도약을 위한 특별보고서 위원회(특보위)’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캠 이영준 학장은 “후마가 초창기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현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다”며 “이번 재도약을 통해 후마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Education에서 Learning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Education은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고 학생들은 수용하는 입장이라면 Learning은 학생의 능동성에 기반 해 각자의 생각을 도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심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여타 대학들이 너도나도 기업논리에 입각한 실용적 학문을 향한 2011년, 우리대학은 ‘대학다운 대학’을 지향하고자 ‘후마의 출범’을 통해 인문학을 선택했다. 당초 후마는 ‘학문과 평화의 새로운 전진’과 ‘국내 대학을 선도하는 진정한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으나 현실의 벽은 녹록치 못했다. 후마가 출범되기 이전과 그 직후부터 강좌 수 부족,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양교육의 차별화 등의 문제점이 속속 제기됐다. 이 문제들은 출범 7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후마의 고질 병으로 남아있다. 특보위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후마니타스 칼리지 재도약을 위한 특별리포트’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후마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여는 글로벌 교양교육’이다. 이는 이전의 비전인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이 되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서울캠 이영준 학장은 “새로운 비전이 이전과 다른 점은 학생의 능동성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다”며 “이전 후마가 ‘지식의 전수’하는 면이 강했다면 이번의 재도약은 학생의 목소



지난 20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후마니타스 공청회에서 서울캠 이영준 학장이 재도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이수형 기자)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
토론수업과 절대평가로
중핵교과 강좌 당 학생 수 감축
단과대학, 교양교수 교류 활성화

“

리로 후마를 만들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후마에서 내놓은 혁신안은 크게 3 가지다.

먼저 학사운영 부분이다. 지난 20일 서울캠에서 열린 후마 공청회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짚었던 문제점은 ‘일방향적,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후마는 전 교과에 ‘발표-토론-글쓰기’ 방식을 도입하고,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5일 국제캠에서 열린 ‘후마 재도약을 위한 학생의견수렴 공청회’에서 특보위 이준태 교수는 “교양교육은 고민과 토론이 주된 수업 내용이 된다”며 “평가방식에 절대평가, 표준학점제, Pass/Non-pass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후마의 혁신안 중에는 현재 약 70~80명에 해당하는 중형강좌를 줄이고 1,000명 이상의 대형강좌와 50명 이하의 소형강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강좌 개발을 활성화 해 1,000명 이상을 수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명 이하의 소형강좌들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AI시대 미래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및 온라인 영어강좌 등이 계획에 있다.

두 번째는 중핵, 배분이수, 자유이수 등 교과운영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중핵교과에서는 강좌 당 수강인원 수 감축을 제시

했다. 대학본부가 그간 재정 문제를 이유로 강좌 수 증설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음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시도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학장은 “글쓰기, 발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강좌 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한다”며 “중핵교과 강좌 당 수강인원을 현재 45명에서 35명 선으로 줄여 21개의 강좌를 더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본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후마는 배분이수과목이 전공과의 간격을 좁히고, 과목 자체의 발전을 위해 단과대학 교수와 후마 교수가 함께하는 ‘배분이수과목 발전위원회’의 설립을 혁신안에 담았다. 또한 배분이수교과와 중핵교과를 연동시켜 중핵교과에서 다른 과학혁명, 계몽 등에 대한 주제별 심화과정 개발이 계획 안에 들어갔다. 자유이수교과에서는 ‘학문’보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술’에 집중해 예술·축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CSC와의 협력으로 문명탐방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마 혁신안에는 현재 후마 교수진에 대한 운영방안을 담았다. 이번 해 6월에도 “저희는 후마의 중핵교과 소속 객원교수·시간강사들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대자보가 붙어 비전임교원 처우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오랜 비전임교수 처우문제를 청산하고자 이번 혁신안에는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인사 위원회 상시운영’ 등이 포함됐다.

서울캠 후마 공청회에서 이 학장은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일정부분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학교도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건문제는 서로 협의중”이며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임교원 전환 문제에는 ‘객원교수를 전부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고 타 단과대학 객원교수와 관련해 협평성이 문제가 있어 단정 짓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안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양 캠퍼스간 좁혀지지 않는 전공의 교양인정에 대한 시선차이다. 전공이수 학점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과대학 및 미술대학 학생들은 후마 측에 지속적으로 ‘전공과목을 들으면 배분이수과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캠 대부분의 학과가 단일전공시 졸업을 위해 들어야 하는 전공학점이 50~60학점인 반면 공대의 학과들은 이수해야 하는 전공학점이 80학점을 넘나들어 교양 33학점을 듣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캠 공청회에서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단과대학 별 후마교육 위원회 설립으로 공과대학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양을 각 단과대학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캠 이 학장은 “교양교육은 사람살이의 기본에 대한 교육이며 교양과 전공을 결합시키는 전공연계성은 추구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공기준을 교양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교양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9월 양 캠퍼스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와 공청회를 통해 세부내용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10월 안에 후마는 재도약 선언문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후마 재도약에 관해 윤해원(언론정보학 2016) 씨는 “그간 후마와 학생 소통이 미비했는데 이번 기회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캠 공청회에 참여한 박원규(시학 2014) 씨는 “학장이 먼저 나서서 학생들과 공청회를 제안하고 학생과 소통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마가 우리대학의 미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청회,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후마 행정실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학생들의 일상적인 요구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셋째 주(10.16~10.20) 졸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졸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한솔그룹 채용면담	10.16(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당실	
한솔그룹 채용면담	10.17(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당실	
입사지원서 작성 포인트	10.17(화) 12:00~14:00	청운관 B117	취업스쿨
금융학부 졸업상담	10.17(화) 17:00~18:00	청운관 619호	취업스쿨
합격하는 자소서작성법!	10.18(수) 13:00~15:00	청운관 1층 409 상당실	취업스쿨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별로 사전 청탁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료

* 신청 후 학생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신청 학생과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함.

* 출석 협조전달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2. 취업진로지도 및 졸업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방법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인연 박언경 홍상기, 오신종	오늘인 355호 제4법학관 107-2호 청운관 6번 상당실	총학전형시스템 '수업/성적/상당' 신청
상단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 검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당 전 · 후 각 1회(총 2회) 필수			
주의사항	- 상당 당일 취소 불가(상당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서 출석하여 저첨(필수)			

3.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채용 리커링

신청 기간	일시	모집 대상	신청방법
2017.10.13. ~ 10.29 24:00까지	홈페이지 참고	파라다이스 온라인 지원 (http://recruit.paradise.co.kr)	
09.26(화) ~ 10.16(월) 14:00까지	채용사이트 내 지원 결과에서 직접 확인	동원그룹사이트 (http://recruit.dongwon.com)	
2017년 10월 중 (주말 공고 계약 예정)	홈페이지 참고	서울아산병원 온라인접수 (http://recruit.amc.seoul.kr)	
2017.10.10.(화)~10.23(월) 18:00까지	홈페이지 참고	한솔그룹 채용홈페이지 온라인지원 (http://recruit.hansol.com)	
~2017.11.2까지	홈페이지 참고	EN 한영 홈페이지 (http://www.eny.co.kr/ko/careers/students)	

자세한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w.khu.ac.kr>)에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w.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wb@khu.ac.kr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예술의전당 음악당 브랜드 SAC CLASSIC의 두 번째 페스티벌

2017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

2017년 11월,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이 다시금 교향악단의 축제로 분주해집니다! 올해 제4회째를 맞이하는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가 11월 1일(수)부터 8일(수)까지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4월 개최된 <교향악축제>에 이어 예술의전당 음악당 브랜드 SAC CLASSIC의 두 번째 축제인 SAC FESTIVAL과 함께하는 대학오케스트라축제는 정착, 창작, 혁신이라는 주제로 8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젊음, 거장을 연주하다!

국내 대표 7개 대학 오케스트라가 참가!

2017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는 젊음, 거장을 연주하는 부지로 총 7개 대학의 오케스트라가 참가합니다.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각각의 7개 대학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감각을 통해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를 엮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젊은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베토벤, 바그너, 브람스, R. 슈트라우스, 사이골프, 베를리오즈 등 거장의 음악은 이들 과 중시대를 살아가는 20~30대 청년층은 물론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2017 예술의전당 SAC CLASSIC 페스티벌

2017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

2017 예술의전당 대학오케

하나의 학교, 두개의 후마?

학사제도 차이

장유미 기자 yummy0825@knu.ac.kr

2011년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정식 출범 전까지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은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양학부, 국제캠퍼스(국제캠) 교양학부, 학부대학으로 나뉘어 있었다. 후마를 통해 분산된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학과나 캠퍼스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교양교육이 가능할 것이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캠과 국제캠 사이 남아있는 몇몇 후마 학사제도 차이가 후마 출범 후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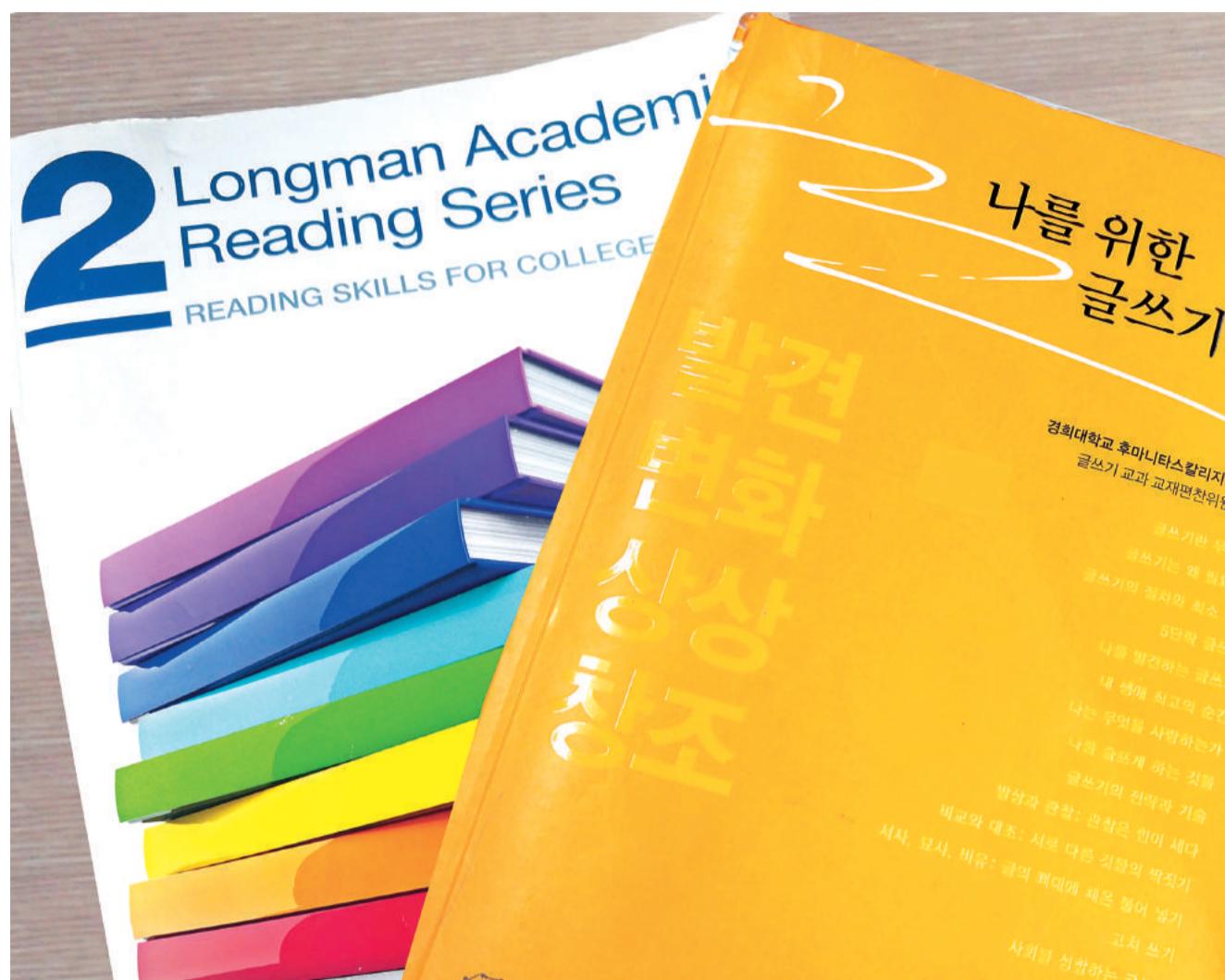
서울캠에선 후마 기초교양 ‘글쓰기’ 과목의 성적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반면, 국제캠에선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후마 설립 이후 계속된

성적평가 방식 논란

서울캠 역시 후마 설립 초기에는 글쓰기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이었다. 후마 출범 후에도 중핵교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교양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동안에도 상대평가가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합 하느냐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지난 2010년 후마 설립 전 논의 과정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대학생위원회)’는 “후마의 기본 목적인 학생 개인의 소양을 기르는 것에 부합하도록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학점제도 보다는 ‘P/N’ 제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함”을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2012년 3월, 서울캠 후마는 대학장 주재 회의를 통해 글쓰기와 시민교육 과목의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국제캠은 서울캠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 국제캠 후마 학장이었던 이영식(응용화학) 교수는 지난 2013년 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2012년 논의 당시 국제캠 글쓰기 교수들 사이에서는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제캠 후마 측은 “2012년 당시 학점 인플레이션과 일부 교수가 작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할 가능성이 우려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양 캠퍼스 교수 간 성적평가방식에 있어 시각차가 존재했음을 밝혔다.



양 캠퍼스 사이 남아 있는 후마 학사제도의 차이가 출범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캠 글쓰기 과목 PD교수를 맡고 있었던 김진해(국어국문학) 교수는 “글쓰기 과목에선 경쟁보단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협력, 상호작용이 강조돼야 하는데 상대평가 방식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을 때 국제캠도 함께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개강 이후 국제캠은 여전히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며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학생회 측으로부터 성적평가방식 전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고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적 평가 제도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양 캠퍼스가 후마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족한 ‘후마 재도약을 위한 특별보고서 위원회(특보위)’에 참여한 국제캠 후마 이준태 교수는 “아직까지도 양 캠퍼스 사이에 교양교육이 왜

필요한가, 전공과 교양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며 여전히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캠 국제캠 사이
후마에 대한 시각 차이 인정

특보위는 양 캠퍼스 학사제도 차이로 인해 하나의 후마가 두 개로 운영됐음을 지적했다. 특보위 이준태 교수는 “중핵교과의 경우 ‘누가 더 많이 고민했고 덜 고민했느냐’를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과목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특보위를 통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제캠 후마 교수진의 견해가 지난 2012년 성적평가방식 전환 논의 당시 견해와 사뭇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준태 교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중핵교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양

교육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위를 총괄하는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또한 “전면적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며 “결국은 절대평가 혹은 P/N방식의 성적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주장해 교양 과목 평가방식에 변화가 따라야 함을 시사했다.

강명주(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씨는 “서울캠은 가능하고 국제캠은 그러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 것 같다”라며 “캠퍼스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양 캠 학사제도 차이를 줄이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교양 영어에 대한 학사제도 또한 양 캠퍼스 간 차이가 있다. 서울캠은 공인영어성적(TOEFL, TEPS, TOEIC)을 통해 후마 기초교양 영어교과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캠은 ‘국제화 추진 전형 입학자’,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 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이

수자’,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Intensive Program이수자’ 등에 기초교양 영어교과 이수를 면제한다. 하지만 국제캠에는 영어교과 이수면제 제도 자체가 없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은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영어 과목의 수준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학생들로부터 이수면제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4년에 이수면제 제도를 정식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캠 후마 측은 “이공계 및 예체능계가 많은 국제캠의 학과 특성을 고려해 이수면제 제도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국제캠에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캠에만 존재하는
영어과목 이수면제 제도

2014년 논의 당시 국제캠 대학영어 PD교수를 맡았던 신명아(글로벌커뮤니케이션) 교수는 국제캠이 이수면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다르게 설명했다. 신 교수는 “대학영어 과목은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영어실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어느 정도의 실력만 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인문지식 습득에 저해된다고 생각해 학장님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씨는 영어1, 2 과목을 들을 당시 국제캠에도 영어과목 대체 제도가 있었다면 대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영어교과는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돋는 수업이라 생각하는데 영어전공자나 높은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학점을 투자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낭비라고 느껴진다”며 “국제캠에도 국제대학이나 외국어대학 학생 그리고 그 외 영어를 잘하는 학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제도를 서울캠에서만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캠퍼스라는 학교 기조에 모순된다고 생각하며 국제캠퍼스 학생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입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출범한 후마는 이번 특보위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의 교양’을 위한 재도약을 앞두고 있다. 설립 초기 후마가 세웠던 ‘탁월한 개인, 책임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의 목표가 양 캠퍼스에 모두 공유돼야 할 것이다.

2017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 공고

1. 개요

1. 훈련대상: 2017년 1학기 기본교육 훈련(8시간) 불참자, 2학기 복학생으로 '17년 훈련 불참자 전원
2. 훈련장소: 용인예비군훈련장(용인시 차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네비게이션: 바른고기 김색)

3. 훈련일자

훈련 일자	훈련 대상	시간
11월13일(월)	• 국제대학 • 공과대학 • 생명과학대학 • 외국어대학 • 응용과학대학	
11월14일(화)	• 예술디자인대학 • 전자정보대학 • 체육대학 • 일반 / 특수대학원 • 2시간 대상자 전원에게 6시간 이수자)	09:00~18:00

4.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 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여권) 필히 지참할 것

5. 교통안내

가. 학교 지원차량: 학교정문 출발(7:45분) → 용인시 예비군 훈련장 도착(8:50분)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 군부대 차량(미니버스 24인승) 용인버스터미널에서 08:00, 08:30 출발(2회 운행)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6.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자: 09:00 이후 자연 도착자는 입소불가이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17년부터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로 지급되오니 확인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바. 무단불참으로 인한 고발 및 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개인 책임임에 유념
※ 금번 보충훈련 불참자가 추후 보충훈련에는 차령자원 없이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번 보충훈련 전원 참석 요망
사.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 예비군 연대장

2017년도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안내

1. 훈련대상: 2017년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2. 장소: 금곡예비군훈련대

3. 일정

훈련명	훈련일자	대상	소속
향방기본 1차보충훈련	9. 28(목) 10. 13(금)	1~3시간 대상자 4~8시간 대상자	소속 구분 없음 문과대학, 0교대대학, 호텔관광대학
	11. 3(금)	4~8시간 대상자	교원, 대학원(일반/특수/전문), 간호교학대학, 경영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악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과, 청경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

4.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45인승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 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30번(청량리/워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철전: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종양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5.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훈련 소집통지서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 가능
다.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등) 불량자 훈련입소 불가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마.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자는 입소 불가
바.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사. 공결제리를 위한 훈련참가 확인서는 훈련종료 후 다음 근무일부터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시 발급함
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서비스 및 금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자.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차. 훈련 휴학 등 정부 확보 수신을 위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 번호로 반드시 수정
카.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원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야음정음, 문자의 반격

전문가 칼럼

김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새로울 것 없고 그저 새삼스러울 뿐이다. 역시나 올해도 말의 파괴와 몰락을 걱정하는 잔소리꾼들의 목소리가 높다. 1년에 한 번 서는 장날을 만난 것처럼, 이들은 병든 한글과 한국어를 걱정하고 이를 망가뜨리는 ‘젊은 것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한다. 말에는 모종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의 균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름답고 순수하며 필연적으로 그렇게 써야만 하는 상태’를 만나며 이것을 흐트리뜨리는 것은 말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눈으로 보면, 말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귀착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귀착될 때 위험하고 재미없다.

‘외국어 남용, 신조어, 줄임말, 사물 준대, 외계어, 보그병신체, 급식체’에 이어 올해의 죄인은 ‘야음정음’이다. 악필인 사람은 안다. 내가 쓴 글씨를 다른 사람이 잘못 읽을 때의 낭패감을. ‘하’를 ‘라’로, ‘발’을 ‘박’으로, ‘모례’를 ‘오례’로 읽고, 급기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읽으면 불펜을 집어던지게 된다.

야음정음은 이런 오독을 새 표기법의 반열로 격상시킨다. ‘댕댕이(멍멍이)’, ‘커여워(귀여워)’, ‘경희미(경희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세종마왕(세종대왕)’, ‘유재석(유재석)’, ‘광광 우력파(광광 울었다)’, ‘꼬끼솟(꼬끼솟; 피가 거꾸로 솟는다)’, ‘박근혜(박근혜)’, ‘근의 공식(근의 공식)’, ‘앵귀리지(앵귀리지)’, ‘鞬선(복복선)’, ‘뜨또(비벼)’, ‘읊높(폭풍)’, ‘롬곡(눈물)’. 이런 예들은 비슷하게 생긴 문자를 비틀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문자의 안온한 질서를 흔든다(댕댕이). 음절을 자음 하나로 바꾸기도 하고(박근혜), 두 음절을 한 음절로 구겨 넣기도 한다(鞬선). 90도로 기울이거나(뜨또) 아예



“
야민정음은 문자가 말소리의 노예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자가 말소리와 어긋나고, 이미지가 문자가 되는 등,
문자의 반란은 계속될 것이다.”

180도 뒤집어야 읽히는 것(읊높)도 성을 밀어붙인다. 주변을 둘러보라. 있다. 빠르게 읽히던 글은 아리송해지고 서걱거린다. 야민정음은 문자의 기능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에게 ‘문자’는 뭔가? 아마도 문자는 말소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자의 원래 기능은 말과 무조건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문자는 말을 기록하는 수 단일 뿐이다. 말이 먼저고 문자는 나중이다. 문자는 목소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야음정음은 이러한 상식에 반격을 가한다. 문자가 언어를 반영한다는 상식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 야민정음은 언어를 적는 문자라는 서구의 오래된 개념에 도전한다.

문자는 단순히 구술언어를 그대로 전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자가 말소리의 노예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자는 말소리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문자 자체가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되어 문자의 고유

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독자로서의 오독에서 출발하여 저자로서 오독을 요구하는 이중적 전략은 우리에게 문자의 성격에 대해 다시 묻는다. 말하기도 회자와 청자가 각자 처한 상황이나 위치, 지식과 견해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이해한다. 언어적, 언어외적 맥락은 서로의 ‘의사’를 배반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한다. 오독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그래서 적당한 타협이나 얼버무림, 또는 실패로 끝난다. 야민정음은 문자의 오독을 전시함으로써 문자와 말소리의 자명한 관계를 문제제시한다.

어찌 보면 야민정음에서 말소리(발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댕댕이’를 ‘멍멍이’로 읽을지, ‘댕댕이’로 읽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박근혜’는 ‘박리율혜’로 읽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애초에 이들에겐 말소리(발음)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구성과 조합만이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문자 자체를 비트는 것으로 끌이지 ‘문자-말소리’ 간의 체계적 관계나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다.

망치가 없어 벽돌로 뭇을 박았다고 해서 벽돌이 타락했다고 하지 않는다. 문자가 말소리와 밀착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며 나른한 오후를 일깨운다. 더구나 망치가 변연히 옆에 있어도 굳이 벽돌로 뭇을 박는 빼딱한 사람들이 있어 좋다.

* 야민정음(야음정음) : 최근 온라인 상에서 퍼지고 있는 은어로, 어떤 단어의 글자들을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참여마당

김동현
(사회학 2016)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사연이 제보됐다. 학과와 학번, 소속 동아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이를 두 글자까지 공개하며 한 사람을 고발한 대자보였다. 글쓴이는 자신이 대상자의 전 애인이라고 밝히며 대상자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했다. 글은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논란을 불렀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이 글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이 게시된 커뮤니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이 글 전부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당사자를 비난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9월 중순,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일방적인 폭로로 시작된 ‘240번 버스 기사 사건’이 그렇다. 폭로는 순식간에 퍼졌고 버스 기사는 구설수에 올랐다. 심지어 이를 날에는 청와대 청원제시판에 해당 버스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경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CCTV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버스 기사는 규정대로 버스를 운행했고, 아이가 승객에게 떠밀려 내렸다는 아이 엄마의 주장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사건 발단의 책임은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글을 작성한 목격자에게 있었다.

9월 말 업무에 복귀한 버스 기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쯤 되니 240번 버스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싹 사라졌다”며 “남은 건 상처 입은 나 자신 뿐”이라고 전했다. 당시 여론은 버스 기사를 얼마나 몰인정하고 상식 없는 인간으로 매장해버렸는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소수의 목소리는 기사를 욕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혔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 버스 기사가 말한 대로 분별없는 마녀사냥이 남기는 것은 상처 입은 당사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동일한 내용의 두 기사에 한 쪽은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한 쪽은 긍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후 여론의 동향을 살폈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똑같은 기사를 읽은 이들의 반응은 기사에 달린 댓글과 일치했다. 군중심리 때문이다. 군중심리는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단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동아시아처럼 집단주의의 경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곳곳에 더 만연해있다.

한국 시민들이 이제는 사실관계도 모르는 주장들에 함부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독재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히틀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군중심리가 국가 중대사와 결부되었을 때 그 결말이 얼마나 파국적인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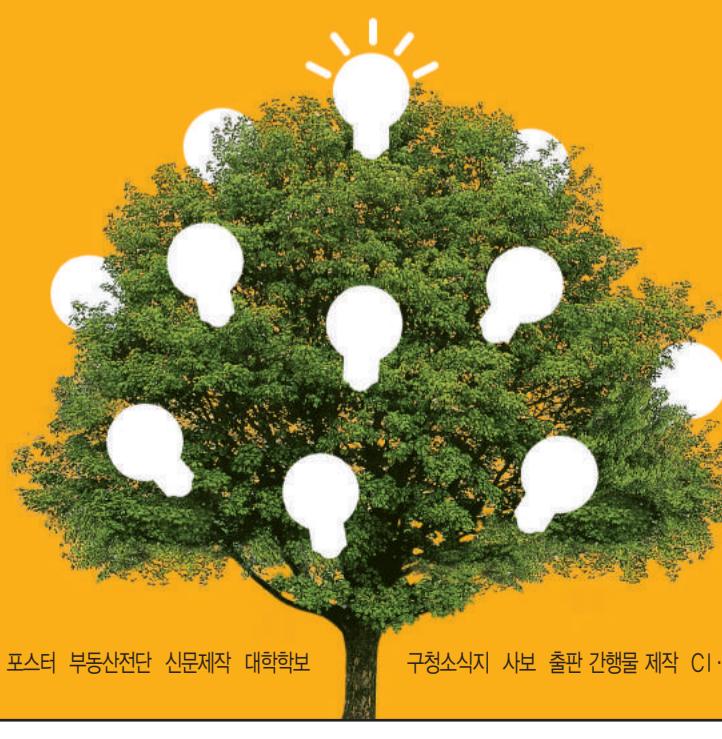
잘못된 시류에 아무렇지도 않게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우려했던 중우정치의 현실화가 아닐까.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혼명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과분하지 않은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인 것이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보도

기숙사를 나오는 학생들… 높은 기숙사비 때문?

기숙사 공실률 원인 분석

이후승 기자 hoooseung.lee@knu.ac.kr

【국제】 학생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기숙사 공실률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정원 공실률은 2015년에 0%로 빈 방이 없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0.96%로 소폭 상승하더니 올해는 큰 폭 상승한 2.47%를 나타냈다. 제2기숙사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2015년에는 0.5%, 2016년에는 0.41%에 불과했던 공실률은 2017년 무려 6.47%로 치솟았다. 학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기숙사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

기숙사 측은 매 학기 퇴사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우정원·제2기숙사 퇴사생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정원과 제2기숙사의 만족도는 각각 50.9%와 48.5%로 나타났다. 생활관 유증근 계장은 절반에 가까운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공실에 대해 “수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발달하는 교통요건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일대에 늘어나는 원룸촌도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대학주보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숙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숙사 자체 설문조사와 달리 기숙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우정원과 제2기숙사에서 각각 퇴사한 학생들은 가장 큰 퇴사 이유로 비용(제2기숙사, 60.3%)과 노후된 시설(우정원, 50.2%)을 꼽았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비싼 비용’으로, 전체 응답자의 81%가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유 계장은 “서울캠퍼스에 새로 만들어진 행복기숙사의 가격이 국제캠퍼스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반발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리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수도권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아질수록 기숙사비 인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국제캠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천동 일대 원룸은 평균 7.9평, 38만원 거래되고 있다. 우정원은 2인실 기준 월 35만 원 정도, 제2기숙사는 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원룸으로 나가면 기숙사와 비슷한 비용에 훨씬 편하고 쾌적한 시설을 훈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식 답변으로도 ‘시설과 환경에 비해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한 응

답자는 ‘주변 시세에 비해 독보적인 장점이 없다’고 했다.

식단에 대한 불만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자체 설문조사에서 우정원 식단은 53.9%, 제2기숙사 식단은 60.9%의 불만족 수치를 보였다. 대학주보 설문조사에서도 주관식 의견으로 ‘가격이 비싸도괜찮으니, 그에 맞는 시설과 식단을 제공해 달라’, ‘학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식단’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식단의 가격에 비해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학생 의견에 대해 기숙사 측은 “사실 식단이 가장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기숙사 식단이 인상을 위해서는 총학생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임 총학생회는 이를 거부했다. 유 계장은 “지금 가격으로는 현재의 식단이 최선이다”며 “가격이 인상되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식자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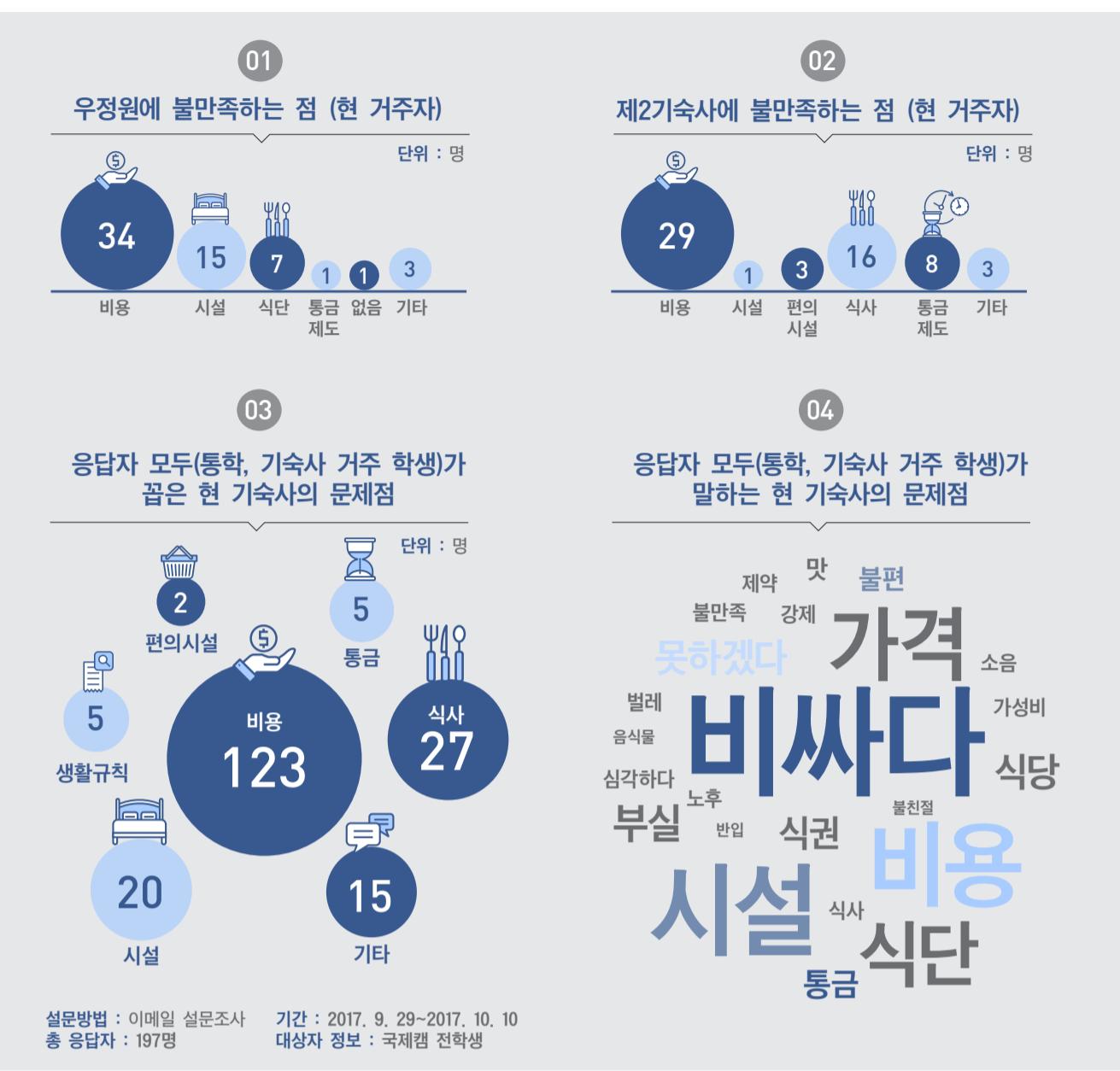
기숙사 측은 내년부터 기존 식권 단체 구매 할인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학기 초 식권을 대량으로 할인받아 구매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회관 식당처럼 정가 3,200원에 식권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체 구매에 제공하던 할인을 폐지해 상승분만큼은 식자재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정원을 나온 학생 중 50.2%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2월까지인 GS건설과의 기숙사 운영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학교 주도로 시설·환경 개선이 힘들다. 기숙사 측은 “우정원의 경우 환경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시설이 위낙 노후하다 보니 티가 나지 않을 뿐이다”는 말을 하며 학생들을 불만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기숙사 측은 “주어진 여건에서 학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며 “불만사항을 개선해주면 개선점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방에서 벌레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통금을 만든 것이지 절대로 통제 목적이 아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기숙사는 학생의 불만을 접수하고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불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불만이 나오는 것이 고민이라는 기숙사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간극은 꽤 넓어 보인다.



우정원 논란 일으킨 노컷뉴스, 반론보도 게재

이수형 기자 dltdt112@knu.ac.kr

언론중재위원회가 노컷뉴스의 우정원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왜곡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노컷뉴스에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14년 동안 백억 쟁기 경희대’를 보도한 노컷뉴스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우리학교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우리학교는 해당 보도가 있는 직후인 지난 7월, ‘해당 기사는 오보이니 기사 정정을 명령해 달라’는 취지로 언론중재

위에 조정을 요청했다. 언론중재위는 우리학교가 요구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GS건설이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니 오보로 인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노컷뉴스가 이 사실을 우리학교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학교의 반론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노컷뉴스가 게재한 반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7일자 사회면 ‘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14년동안 백억 쟁기 경희대’, 7월 14일자 사회면

‘14년간 100억 쟁기 경희대, 기숙사 ‘편법’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희대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측은 “GS건설로부터 발전기금 항목으로 받은 100억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사용수익권)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며, 이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임대료는 기숙사 운영자금(각종 보험, 인터넷 회신료 등), 장학금, 기숙사 수선비 등 전액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HMC투자증권이 현대차투자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이름, 새 마음으로 고객님의 내일을 함께하였습니다.